2026. 5. 26

금융 Weekly Insight

증시 추가 탄력성 회복 여부 vs 금리 상승기 수혜주 찾기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5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보험 업종이 2주 연속 KOSPI 대비 초과 상승한 가운데, 은행과 증권 주가는 다소 정체.
- 반도체 업종 강세로 지수 자체는 상승하였으나, 금리 상승 등 매크로 이슈가 시장심리를 지배하며 금리 상승 민감도가 높은 보험 업종 관심 확대.
- 증권업종은 이번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의 성공 여부(거래대금 측면, ETF LP 관련 수익 측면)가 관건이며, 보험업종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장기금리의 지속가능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

금융 Overview

- 은행 – 펀더멘털은 좋을 전망인데 주가는 여전히 range bound: 은행주는 2.3%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더딘 개선세 시현. 매크로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KOSPI 주도 업종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소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은행의 펀더멘털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생산적 금융 중심 은행의 대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NIM 확대까지 맞물릴 여지가 높아진 만큼, 은행의 이자이익 성장은 실적 개선 혹은 건전성 악화 시 이에 대한 buffer로 작용 가능할 전망. 더 나아가, 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도 초점 필요. 단기적으로 관건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여부. 국내 은행주뿐만 아니라, 상당 수 글로벌 은행주가 양호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rading range를 넘어서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는 매크로 리스크라 판단하기 때문. 즉,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따른 금리 안정화와 대출 성장 여력 증대, 대손 리스크 축소 및 경기 회복 기대 등이 은행의 실적 및 투자심리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증권 – 지수 연동성 다소 축소된 흐름: 증권 업종 주가는 전주 보합세로 KOSPI를 언더퍼폼. KOSPI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 주가 정체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기대감 다소 축소된 상황에서, 2) 금리 상승 등 매크로 요인이 증권업종 운용 손익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 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1) 5월 일평균거래대금은 100조원 수준을 기록하며 1분기(66조원) 대비 30% 이상 증가한 흐름이고, 2) 주식시장 흐름 또한 양호하게 진행되며, 회사별 운용손익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다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최근의 정체된 주가 흐름에서는 증권업종 비중확대가 유의한 전략.
- 보험 – 금리 상승기 수혜 부각으로 2주 연속 상승: 보험 업종은 w-w 8.1% 상승하며, KOSPI를 2주 연속 크게 아웃퍼폼. 삼성생명(w-w +17.6%)과 현대해상(+15.9%)의 주가 수익률이 강세였는데, 이는 매크로 측면에서 대내외 장기채 금리 상승세가 부각되며, 1)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 내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부각되는 가운데, 2) 삼성생명의 경우 보유 삼성전자 지분 및 잠재 배당 수취 기대감이, 3) 현대해상의 경우 확연한 저평가 상태에서 펀더멘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 보험사의 경우, 현재 높아진 금리 수준이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1) 신계약CSM 마진 등 수익성 증가 및, 2) 보험부채 축소에 따른 자본상태 개선 등이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다각화/안정화 측면에서의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 전망.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8) 1금융 갈아타기 대출 잇단 출시** - 주요 금융지주들이 2금융권에서 계열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 포용금융을 강화. - KB는 올해 3월 2금융권 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까지 확대. - 하나은행은 2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서울형 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공급 중. 이는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	**중저신용 차주 부담 완화 위한 대환대출 접근 방식:** 대형 금융그룹들은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을 활용. 즉, 기존 차주의 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이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함으로써 차주의 리스크 값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 **일부 안전장치에도 초점 필요:** 하나은행은 보증재단을 활용함으로써 대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을 채용. 이와 같이, 은행들은 포용금융을 확대하되,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대손 리스크를 일정 부분 관리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에 초점 필요.
	(5/18) 은행들 주주환원 확대 경쟁에 따른 펀더멘털 약화 우려 제기 - 일각에서는 은행그룹이 이제 주주환원 확대보다는 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주주환원 증가는 자본비율 하락 부담을 야기하는데,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 증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주담대 신규 취급분 위험가중치도 상향되었으며,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강화 부담도 고려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결국, 이익 창출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무리한 주주환원 확대는 그룹 전반의 펀더멘털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주환원보다는 지속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원론적으로 합당 - 다만, 경영진의 차별화된 노력 및 역량에 초점 필요:** 분명 은행은 높은 레버리지가 비즈니스의 근간인 만큼, 주주환원 정책은 펀더멘털과 괴리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타당. 다만, 현재의 은행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또한 고려 필요. 즉, 1) 현재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RoRWA 중심의 경영은 아직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은행의 자산 믹스 변화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 2) 주요 은행계 금융그룹에서 비은행 이익기여도는 KB금융이 40%를 넘어서는 등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그리고, 이는 경영진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초점이 필요. **ROE 상승과 글로벌 은행의 Trend도 고려 필요:** 은행들의 ROE는 개선세를 시현 중인 것은 물론 은행들은 추가 개선 가이던스를 제시. 이는 지난 '22년을 기점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금융 관련 부실이 상당 부분 정리되었고, 금리 하락사이클 종료에 따른 NIM 개선, 생산적 금융 강화에 따른 양질의 대출 성장 여력 제고, 비은행 부문의 회복 혹은 개선 등에 기인. 실제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 또한 이와 유사한 실적 개선 추이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이들 선진은행들의 주주환원율은 50%를 넘어 일부는 80~100%까지 근접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Valuation 수준의 상승이 수반되고 있음을 인지 필요 (가령, ING의 경우, 주주환원율 제고 초기 주가 반응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컸기 때문). **은행의 과도한 저PBR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도 리스크 요인일 수 있음을 인지 필요:** 은행의 과도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지 필요. 이는 과거 Credit Suisse의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은행주 가치가 장부가치를 과도하게 하회할 경우, 매크로 환경 악화 국면에서는 오히려 투자자가 모르는 잠재적 손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며 오히려 Valuation이 은행의 영업 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9) 머니무브에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 KB는 정기예금금리를 최대 0.1%p 인상한다고 공표. NH와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은 전월 취급 평균 금리대비 7bp 및 18bp 상승. -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은 머니무브에 기인. 실제로, 정기예금 계좌수는 6년 반만에 가장 적고, 1억원 미만 계좌수도 19년 6월말 이후 최저치 기록.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도 수신 잔액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	**개인자금의 Flight-to-yield - 업권별로 영향은 달리 볼 필요가 있음:** 증시 호황으로 인해 개인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 다만, 업권별 영향은 다르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1) 은행의 경우, 전체 수신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0%에서 현재 50% 이하로 하락한 만큼, 수신 이탈 압력은 과거 공모펀드가 활황이었던 2000년대 중반과 다르다 판단. 2) 반면, 2금융권의 경우, 저원가성 수신 비중이 낮고, 개인 자금 비중이 높은 만큼, 머니무브에 따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예금금리 인상 폭 - 시중금리 상승 폭과 유사한 수준:** 5월 들어 국고채 1년물 금리는 3.02%에서 3.16%로 14bp 상승. 즉,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폭은 시중금리 상승 폭과 유사. 만약 자금 이탈이 심각하다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컸어야 할 것이라 추정 가능. 실제로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수신 기반 방어를 위해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한 경험이 있음.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예금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 NIM에 긍정적 효과 기대:** 예금금리 및 시중금리 상승은 결국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부 대출 중심 금리 상승으로 귀결. 이는 은행 NIM에 긍정적으로 기여. 특히, 최근 견조한 대출 증가율 감안, 은행의 이자이익 성장세는 지속 전망.
	(5/19) 생산적 금융 시대, 중기대출의 쏩쏠한 역설 - 생산적 금융 확대 속에 시중은행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행의 거래 이력 자체가 일종의 검증 마크처럼 통하며 기업은행이 육성한 기업들을 시중은행들이 데려가는 상황이 증가. -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 단순 금리 경쟁 대응으로는 부담이 크기 때문. 이에 관계 금융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변별력 강화가 관건:**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이 기업은행과의 거래 여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변별력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경기 혹은 기술 변화 등 영업환경 변화 영향이 크고, 과거 기업은행이 어려운 시기 우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 결국, 생산적 금융 강화에 있어 중소기업 대출 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은행 자체적인 중소기업 변별력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 **단순 금리 경쟁보다는 교차 판매가 관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관건은 다소 대출 금리가 낮더라도 얼마나 부수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 기여를 제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 가령,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다소 낮게 제공하되, 당좌, 외환 등의 거래를 유치함으로써 플러스 알파를 창출함은 물론, 기업과의 관계 또한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5/18) 일본 증권사 비트코인 펀드 경쟁 심화 - 일본 금융청이 4월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2028년까지 투자신탁의 투자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기로 하며 일본 증권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간접 투자 가능한 공모 상품을 출시 예정. 이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SBI증권과 라쿠텐증권은 개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투자신탁펀드와 ETF 상품을 출시할 예정. 투자자는 기존 증권 계좌로도 가상자산에 투자 가능하게 되는 것. 참고로, 닛케이가 일본 주요 증권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1개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신탁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 -SMBC, 미즈호그룹은 물론, 노무라, 다이와 증권도 규제 체계 완성 시 가상자산 투자신탁 시장에 진출 전망.	**한국도 제도화 기대 점증:**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마저도 가상자산 ETF 출시 등에 대한 가시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만큼, 한국도 제도화에 대한 작업이 보다 가속화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는 현물 ETF 도입이 관건:** 암호화폐 ETF가 도입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ETF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큰 폭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현재의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ETF 운용 및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5/19) 퇴직연금 70%룰 개정에 대한 필요성 검토 필요** -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허용치는 70%. 하지만, 증시 호조로 인해 일부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비중이 법정한도를 초과. 물론, 70% 초과 시 당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것은 아님. 하지만, 주식형 상품 추가 투자는 불가. - 실제로 DC형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월 말 기준 23.4%가 70% 한도를 초과. 즉, 이들은 주식형 상품을 추가 매수할 수 없다는 얘기. - 한국의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 미국 401K를 벤치마킹한 제도. 하지만, 미국은 자산 배분을 자유롭게 결정, 주식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 결국 21년 전 만든 퇴직연금의 70%룰은 이제 개정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	**기존 주식형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비중 확대 – 연금 자산 내 주식형 자산의 trim down은 쉽지 않은 선택:** 국민연금과 유사한 이슈라 판단.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 자산 내 주식형 비중이 커진 일부 자산의 경우, 이를 trim down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 **결국 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높아질 전망:** 물론, 연금 특성 상 안전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고려 필요. 다만,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어선 경우, 현재의 70%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5/20) 회생절차에 들어간 다원시스 금융권 부실대출 규모 2,400억원 - 철도차량 납품지연 사태로 질타를 받은 다원시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은행들은 1Q부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적립. 동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총액은 2,402억원이며, 이중 IBK가 1,43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신한은행이 487.8억원, 우리은행 133.3억원, KB 40억원, 하나 23억원 순. - 기업은행은 1260억원의 토지 및 건물 담보를, 신한은 115억원의 토지를 담보로 설정. 다만 일부 은행 여신은 건물준공 등기 이후 담보를 취득하는 후취담보대출 형태로 이뤄진 상황. - 은행들은 1Q 중 1천억원대의 충당금을 적립. 신한 400억원, 우리 130억원, KB 40억원대 수준으로 이들은 익스포저 대부분에 대체 충당금을 적립.	**은행 추가 실적 영향 미미할 전망:** 언론 보도와 같이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익스포저에 대해 대부분의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추가적인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핵심은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의 변별력 보유 여부:** 다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은행들의 기업 변별력에 대한 중요성 환기라 판단.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당초 담보 중심의 대출보다는 기업의 사업성을 바라보고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만, 금번 사례는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얼마나 단번에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충분. 즉, 향후 생산적 금융 강화 과정에서 은행들의 보다 강화된 기업 변별력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신용대출은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환기 필요.
	(5/21)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 금융위 중점 추진 과제 발표 -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 추진 과제를 언급. - 포용금융 시스템 내재화 노력은 물론, 포용금융을 위한 건전성 규제도 일부 완화 의지 표명. - 금융사 중 보안 역량과 AI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사를 선별,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안 목적으로 AI 활용 시 6월부터 한시적 규제 완화 방침. -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입을 위한 통합계좌 대상은 현재 주식만 포함. 이를 ETF, ETN으로 확대 예정. 참고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금은 5.8조원. - 금융위는 9월로 예정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일본의 재팬 위크와 같이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로 만들겠다고 언급. - 중복상장 금지제도는 7월 시행 목표로 준비 중.	**포용금융 위한 규제 완화는 긍정적 – 하지만, 결국 관건은 변별력:** 포용금융 강화를 가로막고 있던 일부 규제 완화는 분명 긍정적. 하지만, 결국 포용금융의 부실이 높아질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자본 및 건전성 지표 훼손으로 이어지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불변. 결국, 관건은 은행들의 포용금융 강화 속에서도 변별력이 될 전망.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유입 확대 기대:** 현재 시장에서의 주된 화두 중 하나는 추가적인 매수 주체의 유입 여부.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 제고 및 투자 가능 상품군의 확대는 긍정적.
	(5/23)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 은행권 이자이익 증가 - 5년물 금융채 금리는 4.24%를 기록, 4월 20일 대비 38.5bp 상승. 이에 은행들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7%대로 상승하였고, 코픽스 금리 상승으로 변동형도 상승. - 은행 예대금리차는 1.512%로 4bp m-m 상승. 이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작 이후 22년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 이에 은행권 이자이익 증가 전망. - 반면, 차주들은 이자부담 증가가 고물가와 맞물리며 부담이 가중되는 부담은 우려 요인.	**이자이익 증가는 긍정적 – 단순히 이익 증가를 넘어 부실에 대한 buffer 확보:** 이자이익 증가는 긍정적 요인. 매크로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이익 증가로 해석 가능. 다만, 현재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자이익 증가는 오히려 향후 부실 혹은 부담에 대비한 buffer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 가능. **예대금리차 지표에 대한 고민:** 예대금리차 상승을 단순히 높아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는 오히려 은행의 영업 행태를 왜곡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필요. 가령, 현재 포용금융 및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은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은 통상적으로 단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음. 즉, 은행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이 확대될 경우, 단순히 주담대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만으로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상승하는 구조가 불가피. 이는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에도 동일한 논리. 즉, 예대금리차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5/21) 7월부터 중복상장 금지…외국인도 국내 ETF 직구 허용** 금융위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7월 시행 목표로 준비 중임을 공식 확인. 5월 말~6월 초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예정이며, 특정 예외 열거 방식보다 이사회 주주보호 의무 충분성 판단 기준 마련 방향으로 추진. 동시에 현재 개별 주식에만 허용되던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 범위를 ETF·ETN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 통합계좌 도입(4/26~5/15) 이후 누적 순매수 2.2조원, 거래대금 5.8조원 기록으로 초기 성과 확인.	**증시 제도 기반 우호적으로 전개:** 중복상장 금지는 국내 증시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주가 저평가 해소 흐름을 지속시킬 전망. 다만,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의 예외 범위 설정 방식이 기업 M&A 활동과 그룹 구조 재편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 필요, 세부 기준 공개 시점이 주요 관찰 포인트.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 ETF 직구 허용 또한 국내 ETF 운용사 및 증권사의 위탁 수수료 기반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 요인. 통합계좌 도입 초기 성과(누적 순매수 2.2조) 확인으로 외국인 수급 기반 확대 추세가 실물로 검증되는 구간, 이후 월별 거래 추이를 통해 지속성 여부 점검 필요.
	(5/21) 퇴직연금 적립 500조 돌파…ETF 투자비중 10% 육박, 수익률 6.47% 사상 최고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경신.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은 6.47%로 사상 최고치 기록, 증권사 계좌(실적배당형 중심)가 은행 계좌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수익률 시현. ETF 투자 비중도 10%에 육박하며 빠르게 상승 중. DB형 중심에서 DC·IRP 형태로의 전환 및 그 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 흐름이 지속.	**퇴직연금이 브로커리지 판도를 가르는 핵심 영역으로 변모 중:** 최근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로 개인투자자들의 퇴직연금 잔액의 DB에서 DC·IRP로의 전환 유인이 더욱 강화. 적립금 증가 +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 효과가 증권사의 장기 수익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충. 500조 시장에서 사업자별 점유율 차이가 증권사 별 실제 수수료 M/S의 구조적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퇴직연금 시장 MS 추이를 주요 장기 모니터링 포인트로 점검 필요.
보험	**(5/20) 실손 요구자본 기준 통일되니…손보사 자본건전성 '쑥'**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생·손보사 간 통일하는 방안을 적용, 기존에 생보사보다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던 손보사의 실손 관련 요구자본이 완화. 이로 인해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의 KICS 비율이 전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개선. 특히 기본자본 KICS 권고치(50%) 미달 상태였던 일부 손보사들의 자본 여력이 제도적으로 보충되는 효과. 실손 요구자본 기준 통일은 생·손보사 간의 규제 차별화 해소 및 시장 공정성 제고 취지.	**중하위 손보사 자본 여력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 제도 변경에 따른 외부 영향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존재하나, 금번 실손 요구자본 기준 통일에 따른 보험사 별 추가 자본비율 개선은 긍정적. 다만 금번 사례와 같이 올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등 보험사 간 차이가 존재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일치화 필요성 논의가 지속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정보 불확실성은 당분간 존재할 수 있음. 세부 적용방안의 확정 및 이에 따른 회사별 영향에 대한 시장소통이 빠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5-26 (화)		미국 3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3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5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3월 경기동향지수(수정치)
2026-05-27 (수)	3월 인구동향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중국 4월 공업이익
2026-05-28 (목)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미국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4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4월 내구재주문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4월 건설수주
		일본 4월 신규주택착공건수
2026-05-29 (금)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미국 5월 시카고 PMI
	4월 산업활동동향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4월 관광통계	유로존 4월 총통화(M3) 공급
		독일 5월 실업률
		독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예비치
		영국 3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4월 산업생산(예비치)
		일본 5월 소비자신뢰지수
		대만 1분기 GDP(확정치)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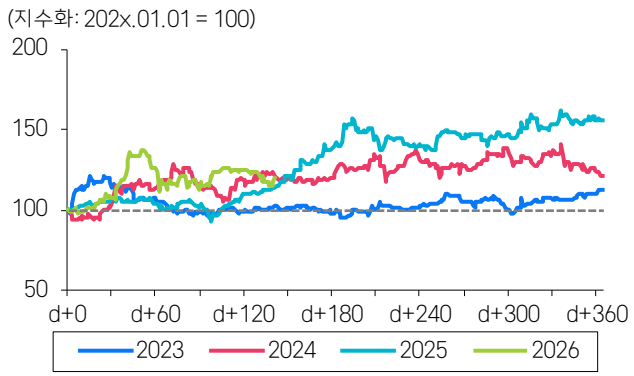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6,234.9	7,847.7						4.7%	22.3%	202.6%	86.2%
	KRX은행	204.2	1,574.1						2.3%	(2.6%)	65.6%	20.7%
	KRX증권	97.5	2,805.2						(0.4%)	(0.9%)	182.8%	83.4%
	KRX보험	127.7	3,955.9						8.1%	20.3%	112.1%	47.8%
	결제 지수**	1.506	n/a						1.9%	(7.3%)	67.9%	14.8%
은행	KB금융	59.7	160,000	57.1	1.0	11.4	8.7	12.9	2.8%	1.7%	65.5%	28.3%
	신한지주	46.6	98,200	53.6	0.8	10.4	8.4	15.5	3.3%	(0.4%)	81.5%	27.7%
	하나금융지주	33.5	122,100	50.8	0.8	10.6	7.6	12.3	2.6%	2.2%	81.2%	29.8%
	우리금융지주	23.2	31,550	44.5	0.7	10.6	6.6	12.1	1.0%	(9.6%)	75.5%	12.7%
	기업은행	16.7	21,000	36.0	0.5	8.5	6.5	2.2	0.5%	(6.0%)	37.6%	0.2%
	BNK금융지주	5.4	17,470	45.1	0.5	8.3	6.2	9.5	0.9%	(7.1%)	70.3%	10.1%
	JB금융지주	4.7	25,150	42.2	0.5	9.5	5.7	21.9	0.8%	(16.3%)	45.5%	(1.9%)
	iM금융지주	3.0	18,920	51.8	0.8	13.2	6.3	6.6	4.2%	(0.1%)	81.6%	21.7%
	카카오뱅크	10.9	22,800	50.0	1.5	8.8	17.5	29.1	1.6%	(7.5%)	0.4%	5.6%
증권	미래에셋증권	37.8	67,500	40.5	2.0	18.2	15.2	72.9	(3.4%)	(2.3%)	404.8%	190.3%
	NH투자증권	11.7	32,850	45.7	1.3	12.6	11.1	19.4	0.9%	(7.7%)	105.6%	55.7%
	한국금융지주	14.2	254,500	22.4	1.1	20.0	6.4	23.6	(1.4%)	(1.4%)	163.7%	57.4%
	키움증권	10.7	407,000	22.6	1.6	22.6	7.8	44.7	2.8%	(8.3%)	176.3%	40.6%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3	109,200	50.0	1.7	22.8	8.2	14.9	3.2%	(5.5%)	0.3%	(3.4%)
	삼성화재	25.4	569,000	45.1	1.0	10.1	10.9	12.0	2.7%	23.3%	56.5%	14.5%
	삼성생명	72.9	364,500	46.3	0.6	3.7	15.9	17.8	17.6%	47.3%	302.3%	131.3%
	DB손해보험	10.1	154,500	32.3	1.1	16.6	6.6	9.0	(6.1%)	(10.2%)	62.5%	17.8%
	한화생명	4.9	5,600	16.4	0.3	5.6	6.3	37.8	3.9%	15.7%	120.0%	72.0%
	현대해상	3.3	38,650	11.7	0.5	17.5	3.3	18.3	15.9%	27.8%	73.7%	25.5%
결제	카카오페이	6.8	50,000	n/a	n/a	6.9	53.3	180.2	(2.2%)	(12.0%)	65.0%	1.8%
	NHN KCP	0.8	18,750	n/a	n/a	17.9	12.9	28.8	4.5%	(6.7%)	154.8%	25.8%
	KG이니시스	0.3	10,540	n/a	n/a	7.1	5.1	9.9	0.7%	(7.3%)	21.1%	3.1%
	KG모빌리언스	0.2	4,500	n/a	n/a	10.3	5.3	12.1	(2.7%)	(15.3%)	5.3%	(4.3%)
	나이스정보통신	0.3	29,200	n/a	n/a	9.1	5.1	39.4	(0.5%)	(3.6%)	46.2%	15.2%

참고: 5/22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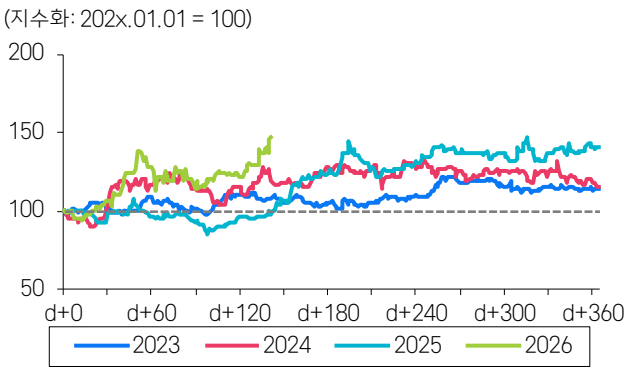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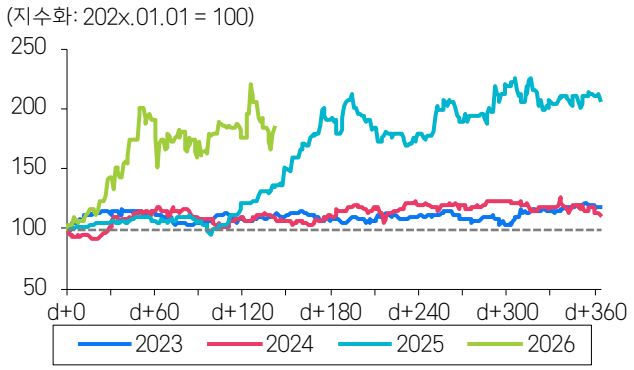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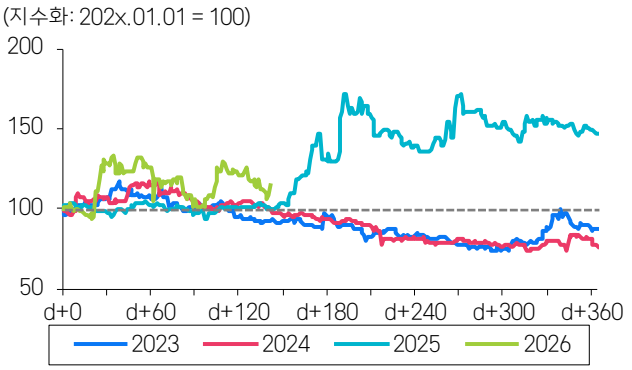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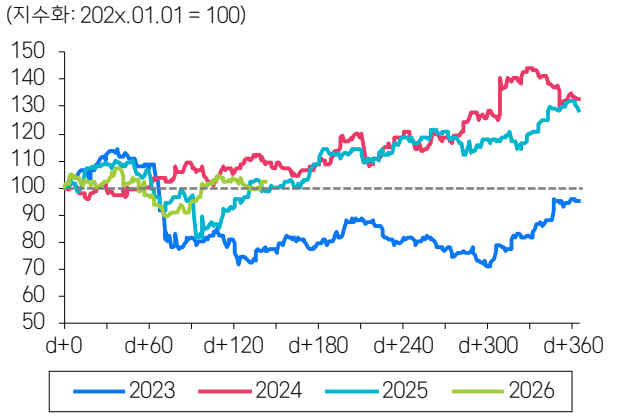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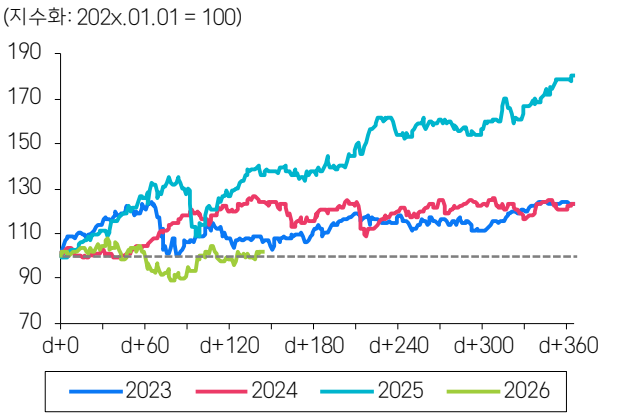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20.9	80.2	2.3	17.1	13.7	11.5	2.9	(0.6)	17.5	(4.9)
		Bank of America	367.6	103.2	1.3	11.7	11.6	17.5	4.1	(0.5)	19.9	(5.8)
		Citigroup	213.4	116.9	1.1	9.7	11.6	54.9	1.4	(2.3)	71.1	7.2
		Wells Fargo	233.8	97.7	1.4	12.8	11.0	11.2	4.1	(3.8)	4.9	(18.0)
		PNC Financial	88.0	74.9	1.4	12.7	11.9	10.8	3.0	(0.3)	27.6	5.0
	유럽	Banco Santander	185.5	63.7	1.4	13.8	10.1	11.4	6.6	6.4	53.8	7.8
		Unicredit	130.0	81.3	1.6	17.0	9.7	8.2	4.0	15.7	31.9	4.5
		BBVA	131.7	89.0	1.9	18.9	9.8	16.1	6.4	8.1	49.5	0.2
		ING Group	92.2	85.5	1.5	13.3	11.3	10.8	6.9	13.7	45.0	13.7
		Lloyds	78.3	80.6	1.3	13.7	10.2	44.5	5.9	1.9	28.0	1.4
		Barclays	81.7	66.5	0.9	10.6	9.1	19.4	5.3	5.1	37.9	(6.3)
	일본	Mitsubishi UFJ FG	225.0	57.8	1.5	11.5	13.3	6.5	2.9	9.4	54.2	20.9
		Sumitomo Mitsui FG	144.1	50.6	1.4	11.2	12.8	13.3	5.0	12.0	66.2	18.8
		Mizuho FG	111.3	55.2	1.5	11.7	13.2	9.1	4.8	12.7	85.4	27.1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0.9	30.6*	0.6	9.1	6.6	3.7	(0.6)	(5.6)	20.2	8.9
		China Construction Bank	300.8	29.8*	0.6	9.5	6.6	1.7	(0.1)	(2.0)	24.9	14.0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6.3	30.2*	0.7	9.7	7.1	6.2	(3.0)	(4.4)	19.6	2.4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48.6	N/A	1.4	5.9	22.7	(31.0)	0.7	3.4	(3.4)	(3.5)
		AIG	40.9	82.2	1.0	11.1	10.7	흑전	1.2	2.5	(5.6)	(9.9)
		Travelers Insurance	65.2	83.5	1.9	18.6	10.9	3.0	2.2	1.2	13.1	5.7
	유럽	Allianz	173.1	81.0	2.3	18.5	12.8	10.6	4.4	0.8	11.0	0.1
		AXA	98.5	59.3*	1.7	16.2	9.8	(8.4)	3.3	(1.4)	(2.0)	(1.2)
		Generalli	69.9	58.1*	1.8	14.1	12.7	11.7	1.3	3.2	17.8	9.4
	일본	Tokio Marine	89.4	48.3*	2.6	18.8	14.4	(0.8)	(2.9)	2.4	26.8	26.3
		Daiichi Life Insurance	38.1	63.5	1.6	11.6	13.3	4.8	3.4	18.6	55.1	28.3
	중국	Ping An Insurance	143.1	36.2*	1.0	13.7	7.5	5.5	(2.6)	(0.2)	33.2	(6.6)
		China Life Insurance	131.3	19.2*	1.2	19.4	6.3	(15.5)	(3.2)	6.5	84.2	5.6
		PICC P&C Insurance	42.0	38.5*	1.1	13.4	8.1	0.6	(3.6)	4.0	(2.4)	(9.7)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05.6	107.7	2.7	16.4	16.8	15.7	5.1	7.5	66.5	13.4
		Morgan Stanley	317.1	72.6	2.9	17.7	16.9	16.3	4.4	6.9	59.5	13.2
		Charles Schwab	161.4	96.4	3.3	23.4	15.1	28.3	(0.8)	1.9	3.1	(9.8)
		Robinhood	66.3	43.3	6.4	17.6	39.2	(8.5)	(4.5)	(13.1)	16.6	(34.9)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2.7	77.7	6.2	35.2	17.7	14.7	(0.5)	(0.7)	9.3	(15.7)
결제	미국	VISA	634.9	21.4*	18.4	66.0	25.7	25.4	1.0	6.3	(7.0)	(6.2)
		MasterCard	440.6	18*	51.0	224.5	25.7	17.5	0.9	(1.1)	(11.5)	(12.7)
		PayPal	39.0	5.9*	1.9	23.3	8.7	(6.1)	(0.4)	(12.4)	(36.7)	(24.2)
	유럽	Adyen	36.3	0*	4.8	21.3	25.0	17.6	10.9	1.3	(38.5)	(28.2)
핀테크	미국	Block	40.5	0*	1.7	10.1	30.5	6.4	(3.2)	(5.0)	15.9	4.6
		Upstart	2.7	0*	3.3	19.1	31.9	99.3	(3.2)	(14.7)	(36.9)	(34.7)
		Affirm	21.9	0*	5.2	11.8	52.3	731.0	(0.9)	2.4	32.3	(12.4)
	중국	LuFax	1.4	N/A	0.0	(0.1)	N/A	흑전	(12.3)	(14.6)	(44.0)	(35.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5/22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